

# 목포 남항에 390억 들여 친환경선박 연구지원시설

### 국제사회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에 친환경화 기술개발 경쟁 2025년부터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성능 평가동 등 연구시설 운영

목포시가 390억원을 들여 남항에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을 구축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인프라) 착공식'이 남항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홍률 목포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등 관련 기관장 및 해운·조선·기자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방비 390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시설을 위한 인프라는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성능 평가동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중전 시험동 ▲해상테스트베드 유지보수동 ▲연구동 ▲국제협력동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부터 연구시

설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인프라 조성부지(3만2000㎡)를 포함한 친환경선박 교육연구지구(6만5000㎡)는 남항 재개발부지(38만㎡)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인프라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이 반영된 공모 사업을 통해 토대가 마련됐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주관 하에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해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한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화를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국내외 조선·해운시장은 친

환경 선박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남권은 국내 연안 선박이 집중돼 있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최적지로서 침체된 지역의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도 갖추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친환경선박 산업 기반이 목포에 자리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친환경선박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양성 등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집적화단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친환경선박 산업 육성"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내세워 해양수산부, 전남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등이 지난달 27일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을 알리는 시삽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품었다” 설레는 신안



갯벌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신안군에 들어선다. 신안 포착도 갈우섬 일대. <신안군 제공>

### 내년 실시설계 착수... 생산유발액 1366억원·고용 창출 2500명 기대

국내 2번째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신안군에 들어선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최적지 선정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공모를 시행 계획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신안군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건립에 대한 이해도, 갯벌의 관리체

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전본부의 건립지로 최종 선정돼 2023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전본부의 건립지가 신안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신안군 최초의 국가기관 설립과 지역 균형발전의 최고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또 보전본부 유치에 따른 시설물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1366억원의 생산유발과 700억원의 부가가치, 2500여명의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한 본부 건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혼신을 다한 유산지역 관계자와 주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보전본부는 신안갯벌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의 갯벌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안군은 보전본부를 적극 지원해 서천갯벌, 고창갯벌, 보성·순천갯벌과 추가 등재할 9개 갯벌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증도 작은도서관 “새 단장 마쳤어요”



###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관

신안군 '증도 작은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신안군은 지난달 27일 박우량 신안군수와 군의원, 북신안농협조합장등 주민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은 지난 2007년 권양숙 여사가 함께해 개관식을 열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휴관 중이었으나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하게 됐다.

이번에 재개관한 작은도서관은 5000여권의 다양한 서적을 비치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고 다양한 자료제공 열람은 물론, 문화 사랑방으로 누구나 쉽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제1호관 '고맙습니다. 증도작은도서관'을 재개관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목포 오면 숙박료 할인

### 12월 5일까지 최대 4만원 할인 광주시·전남도민은 이벤트 제외

목포시가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관광객에게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숙박업소에 유선 예약 후 여행 5일 전까지 목포시 관광과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되며 이후 선정여부가 통보된다. 선정되면 숙박업소 이용 시 필요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해 할인된 금액으로 숙박할 수 있다.

여행자 인솔의 단체관광 및 여행사 관계자,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한 제휴할인 등 타 할인 중복 및 미성년자 등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개별 관광객 당 1회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단 광주시와 전남도민은 제외된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12월 5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목포시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목포시 관광과(061-270-8636)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체류 관광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무안군, 첨단산업·물류 중심도시 발판

### 몽탄면에 복합물류단지 조성...군-캠프벨리 540억 투자 협약

무안군이 적극적인 투자유치 끝에 첨단산업·물류·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무안군은 지난 27일 김산 무안군수와 ㈜캠프벨리 김법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원에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5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벨리는 중국 거신그룹(회장 최관준) 계열사로, 해외 자체 공장에서 생산되는 캠핑용품·실내가구 등을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최근 급증하는 국내 캠핑 수요에 힘입어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캠핑용품 유통부문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프벨리는 성장하는 국내 캠핑용품 시장에 대응하고자,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일

원에 540억원을 투자해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약 2만평인 6만4300㎡ 규모에 기반시설 조성, 물류창고 증설, 연수원·연구원 신축 등이 진행되며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물류·관리 인력 등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단지 내 거신그룹 해외직원 7000여명이 사용할 국제 연수원 건립 등으로 무안국제공항과 지역경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조성되는 복합물류단지는 국내 캠핑용품 유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주신 ㈜캠프벨리에 감사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말 “고마워요”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산, 민간위원장 박상규)는 지난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에게 그림이나 편지를 국화 화분과 함께 전달하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사업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평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사연들을 접수해 최종 58명의 사연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가족, 친구, 선생님, 목사님, 군수님, 후원자님, 원장님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무안군 제공>

## 완도군, 바이오기업 70억 투자 유치

### 솔로몬바이오, 신지면 일원에 기능성 소재 생산 시설 건립

완도군이 '해양 미세조류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7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지난달 26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바이오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솔로몬바이오(대표 이동환)와 7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솔로몬바이오는 완도군 신지면 일원에 '해양 미세조류 배양 및 기능성 소재 생산 시설'을 건립하는데 70억 원을 투자한다.

시설이 건립되면 미세조류를 활용한 '클로로필 a'라는 기능성 소재를 주로 생산하게되는데 '클로로필 a'는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혈액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또 20명의 고용 창출과 관련 시설을 활용한 관광객 체험 활동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솔로몬바이오의 투자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신지면을 중심으로 한 해양바이오 단지를 완성하여 바이오 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엔 개최된 투자 유치 설명회는 전남도의 풍부한 천연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환경 등 강점을 홍보하고, 우수 벤처·창업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남도와 5개 시·군(나주·화순·곡성·장성·완도)과 13개의 바이오 기업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체결한 13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총 830억 원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